[13-2]

21) 앤디 워홀 <황금색 마릴린> 1962 // 자신의 스튜디오(화실)를 팩토리. 자신은 기계가 되고 싶다. Cf) 잭슨 폴락 – 나는 자연이 되고 싶다. 🡪자연이 되고 싶은 자신의 갈망, 자아, 자신을 괴롭혀오는 모든 사고와 관념들을 작품에 담으려 노력.

앤디워홀은 대중이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를 기계처럼 자신은 표현하기를 원함. 앤디워홀은 스스로 돈을 벌기 위해, 공장의 공장장처럼 작업. 현대 소비,산업 사회의 대량생산을 도입한건 맞으나, 팝아트 자체는 대량생산x. 유일성!!! 그래서 Fine art에 팝아트 넣음. 기계에 대한 찬미.

18) 앤디 워홀 <200개의 캠벨 수프캔> 1962 // 노동의 반복, 단조로움, 권태 등을 예술로 만들었다. 예술가의 위치 뒤짚어엎음.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노동자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품을 하나의 목록으로 해서 작업은 하지만 앤디워홀이 자본주의에 편승, 편이였다던가.. 그렇게 말하기 어렵다. 앤디 워홀은 내가 코카콜라를 소재로 선택한 이유는 대통령도 코카콜라를 마시고 노숙자도 콜라를 마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중의 상품은 가장 ‘평등’을 드러낸다. 이 사람의 내면은 그와 같은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

**팝아트는 유일성을 잊지 않는다.** 그래서 고가. 너무나 비싸서 재벌이나 부자가 아니라면 소유하기 힘든.. 기존의 전통 안에 있다. 세상을 비추는 창문. 팝아트는 그것이 아니라 팝아트의 이미지는 바로 현실!!!!!!! **현실**입니다.

현실이라고 했을 때, 왜 이 그림을 그릴까? 🡪 붓이 아니라 **실크스크린**. 대량 생산의 체제(실크스크린. 일종의 판화로 계속 찍어내면 됨). 현실이기는 하지만 캔 하나 봤을 때는 다르다. 복제에 복제를 반복하면 원본성을 잃어버리게 됨. 복사본이 하나의 원본이 됨(원본과 너무 멀어지므로). 실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원본(기호)이다. 아무튼 실제 이미지는 현실이다.

욕망을 충족시켜줄 것 같은 행복감을 주기도 함.(캔밸수프깡통 반복되므로). 물질의 풍요에 둘러쌓인 듯한. 둘러쌓여있다는 충족감. 욕망의 충족감을 한 순간 주다가.. 깨닫게 됨.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됨.

팝아트의 특징 : 욕망과 결핍의 끝없는 순환!!!!!!!!

21) 앤디 워홀 <황금색 마릴린> 1962 // 현실을 보여주지만 재현이 아니라 이 잡지 목록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실크스크린 한 것. 이 여자가 얼마나 고독한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면에 관심x. 대중들이 좋아하는 이 여자의 모습 그대로 실크 스크린을 하는 것. 이 것이 대중 소비사회의 현대인의 모습. 피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쫓아감. 대중 소비 사회의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마치 이 이미지가 현실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황금색은 돈의 상징. 옛날에는 천국의 상징. 황금색 하늘.. 그런데 지금 변화된 성적인 에로틱한 여인의 모습. 현대인이 원하는 마돈나가 바뀌었다. 돈에 둘러쌓여있는 모습. 현대는 돈, 황금의 상징. 미디어 스타를 쫓아다닌다.

워홀은 상업디자이너 였다. 광고의 가장 큰 특징(사회적 문맥 안에서 즉시로 인지). 인지 가능한 기호가 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이용이 가능. 그렇지만 이 사람 디자이너 x.

대량 생산, 키치적, 통속적.. but 유일하므로 고급스러움. **고급성과 통속성 같이 가짐. 따라서 모더니즘과 반모더니즘 특징 동시에 가짐**. 팝아트에서 모더니즘에서 벗어나는 징후 보이게 됨.

22) 앤디 워홀 <마릴린 몬로> 1967 / 앤디 워홀 <마릴린 몬로> 1967 // 반복.

24) 앤디 워홀 <모나리자> 1963 / 앤디 워홀 <최후의 만찬> 1986 // 모나리자는 30번 이상 반복. 현대가 재생산과 복제의 시대임을 보여줌. 고가의 명화라는 그와 같은 전통적 감정, 고귀한 미술에 대한 감정 조차 제거 시키고 있다.

25) 앤디 워홀 <최후의 만찬 Last Supper> 1986, acrylic and silk screen ink on canvas //

26) 앤디 워홀 <모나리자> 1963 / 뒤샹 <L.H.O.O.Q> 1919 //

고귀한 예술품이라는 감정 제거. 고귀함에 대한 존엄성을 굉장히 냉소적으로 반영.

뒤샹은 예술의 고귀함, 심미적인 미적 가치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반항적이고 저항적인 의도.

앤디워홀은 대량생산 통해서 마치 이 세상 모든 것이 획일화 표준화 인스턴트 대량생산물로 전락하는 현대인과 현대의 대중 문화 소비 사회를 그대로 반영하여 보여줌. 또한 반복이 계속 되면서 어떤 느낌이 드느냐🡪 **개성이 없어짐. 그래서 무관심, 중립성을 드러내는 특징**.

27) 앤디 워홀 <인종 폭동> 1964 // 색채와 형식이 도드라짐. 당시 백인 경찰이 흑인을 데모할 때 무차별적으로 구타하며 진압한 것이 신문에 남. 신문의 사진을 그대로 삽화로.. 이 사건에 대해서 비극적이다 슬프다 이런 느낌x. 실크스크린으로서 반복이 되면서 현대인의 무관심, 중립성을 드러내기 때문. 반복이 되어 색면 회화.. 추상적인 느낌이 많이 남. 팝아트가 처음에 제스퍼 존스부터 모더니즘의 계보안에 있고, 추상표현주의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 형상으로의 복귀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면 재현x. 그린 것도 아니고. 잡지나 신문에 있는 것을 가져와 2차적 이미지. 그렇기 때문에 반복과 기하학적 느낌이 그 당시의 추상표현주의의 형식주의를 반영하고 있다.

워홀은 **차용**(자기가 그린 것이 아니라)함. 워홀의 차용🡪원본의 가치(원본의 존엄성)를 상실시키고자 함.

현대인의 무관심, 중립성, 객관성 🡪이게 좋은 뜻이 아니라 무관심에서 온 냉소주의!!(팝아트의 특징) 현대 사회의 모든 특징을 다 가진 것이 팝아트. 또 그와 같은 것을 모티브(주제)로 해서 보여주는 것이 팝아트. 차용에 그치지 않고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특성까지도 팝아트의 특성으로, 하나의 주제로 보이고 있다.

추상표현주의가 물감, 물성의 순수함,자신의 자아를 보여주고자 했다면, 팝아트는 사물을 통해서 현대 소비 사회의 모습을 반추(반영)한다. 대중은 이 걸 보고 재밌어함.

처음엔 2차 대전 이후에 추상이 미술계 장악하게 되면서 화상, 화랑이 죽게 됨(작품을 안 사므로). 너무 어렵고, 형이상학적이어서 떠남. BUT 팝아트하면서 흥미를 가지며 다시 화랑이 살게 됨. 그런데 팝아트를 사는 사람들은 왜 팝아트(실크스크린으로 깡통 복제한 것 같은 거를..)를 사는거지?-🡪 **소비**라는 꿈을 꾸게 한다. 마치 물질적으로 충족 될 거 같은 꿈을 꾸게 만듦. 그래서 결핍의 고통에서 순간적으로 벗어나게 한다. 행복감을 갖는다. 그런데 정신차리고 조금 지나면 허구(환상)라는 것을 깨달음. 오히려 욕망에 더 고통스러워 한다. 이건 워홀이 보여주는 하나의 특징.

28) 앤디 워홀, 파리에서 전시, 1974 / 앤디 워홀 <다색 모택동 15> 1980 // 1970년대부터 우연적인 붓터치 남김 – 순수미술이라는 증명? 작가의 개인적 흔적을 보이고자 하는 특징 보여줌.

23) 앤디 워홀, <Self-Portraits series> 1977 // 마릴린 먼로의 고독에는 관심이 없고, 겉모습에 열광. 추상은 실제 이 여자의 모습의 내면을 끌어내려 했겠지만, 팝아트는 잡지에서 보여지는 2차적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옴.(대중소비사회의 특성이므로)

앤디워홀의 내면도 힘듦. 얼굴보니 슬픈 내면이 보임.

**앤디워홀**은 소비시대의 문화의 거울로서 스스로 상품이 되었고, 대중의 우상이 되었다. 대중사회의 특징인 수동자이며 무관심한 관조자로서 표현된다.

**워홀의 자화상**은 다양한 현대사회의

29) 톰 웨셀만(Tom Wesselmann, 1931-2004) <위대한 미국의 누드> 1963 / 톰 웨셀만 <위대한 미국의 누드> 1963 // 위대한 미국의 누드 연작작품. 오브제와 미술작품이 합쳐진 것. 아상블라주(오브제와 그림이 합쳐진 것). 워홀처럼 오브제 안에서 대중 사회의 특성 찾는 것 반대. 실제로 미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 미국의 대중들의 모습이다. 그런데 많은 비난을 받음.

그런데 대중이 이렇게 풍요롭게 잘 사는가?? 그림에서는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보임. 1960년대의 상류층의 모습 보임. 모두가 이렇게 잘사는가?? 이게 과연 대중의 모습인가?

30) 톰 웨셀만 <위대한 미국의 누드> 1963 / 톰 웨셀만 <위대한 미국의 누드> 1968 // 통속성의 가장 큰 특징.-->에로티시즘 많이 이용. 그래서 이런 상징. 귤은 여자 상징. 담배는 남자를 상징.. 이런 식의 것을 보여준 사람.

31) 톰 웨셀만 <위대한 미국의 누드> 1967 / 톰 웨셀만 <실내> 1962 //

32) 제임스 로젠퀴스트(James Rosenquist, 1933-) <나는 포드 자동차와 함께 당신을 사랑해요> 1961 / 제임스 로젠퀴스트 <퇴화된 부위> 1962 // 병치방식 사용. 광고 그 자체 모티브 보다 광고의 형식 가져옴. 실제 광고판만큼 굉장히 사이즈도 크다.

33) 제임스 로젠퀴스트 <F 111> 1965 // 1960년대 냉전시대. 전쟁 보여주지만 아무도 전쟁 느끼는 사람 없다. 아이가 핵우산 밑에 있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화형식. 광고판. 전혀 위험하지도 않고 현실감이 오히려 없어보일 정도. 대중에 있어서 무관심을 드러내는 거다. 전쟁의 무관심에 대한 풍자 한 것도 있으나?? 물질욕에 사로잡힌 미국의 물질적인 풍토를 냉소적으로 보여줌.

34) 뉴욕 타임지 광고 1963 / 로이 리히텐슈타인(Roy Lichtenstein, 1923-1997) <공을 든 소녀> 1961 //

[붓터치 한 듯한 그림 2장 -위는 리히텐슈타인. 밑은 추상표현주의 작가 것]

로이 리히텐슈타인이 추상 표현주의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린 작품. 작가가 손으로 했기 때문에 작가의 신체적인 제스처 감정이 들어가 있고, 로이 리히텐슈타인 것은 기계화 되었기 때문에 박제화 된 느낌. 무감각하고 무감정한 느낌. 🡪팝아트는 신체 제스처의 자체 조차도 자동화 되었음. 팝아트는 광고의 특성을 가지고는 있으나 정보의 기능이 소비재를 선전하는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다. 복제와 대량생산, 현대 산업 사회의 체제는 가지고 왔으나 미적 쾌감과 유일성은 여전히 고수한다. 그래서 팝아트는 바로 fine art에 들어간다. 그리고 또한 모더니즘 영역에도 속함.

35) 클래스 올덴버그(Class Oldenburg, 1929-) <두 개의 특대 치즈 버거> 1972 / 클래스 온덴버그 <거대한 푸른 바지> 1962 //

36) 클래스 올덴버그 <Floor Burger> 1962 // 자본주의 사회를 반추한다. 오히려 대형화 함으로써 은유적인 느낌 많이 준다.

37) 르네 마그리트(Rene Magritte, 1898-1967) //

38) 르네 마그리트 <투사의 무덤> 1961 // 마그리트의 장미와 유사.

39) 클래스 올덴버그 <립스틱> 1969 // 성적인 에로티시즘. 베트남 전쟁 풍자.

40) 클래스 올덴버그 <빨래집게> 1976 // 경쾌한 느낌. 워홀은 실제 삶과 조금 거리를 둠. 올덴버그는 삶과 미술의 간격 없애고자 하지만 굉장히 새로운 의미가 들어가 있음.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소비재를 통해서 미국의 자본 주의 반영. 물체의 기능성은 완전히 박탈. 이제 더 이상 물체를 통해 보는 것이 아니다. 초현실의 느낌을 주기도 함.

41) 클래스 올덴버그 <Spring> 2006 //

42) 조지 시걸(George Segal, 1934-) <간이식당> 1964-66 / 조지 시걸 <세탁소> 1964 // 고독함. 불안. 미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운전기사가 들어옴. 밤에 들어오니까 불안 무서운 느낌. 조지 시걸은 평범한 도시인이 살아가는 모습 보여줌. 도시 생활의 지친 모습을 보여줌. /아상블라주 (조각+회화). 평범한 세탁소의 한 장면.

43) 조지 시걸 <발 씻는 여자> 1965 / 조지 시걸 <핫도그 판매소> 1978 // 세잔느의 영향 받음. 조지 시걸의 도시인의 일상의 지침 권태로움에 초점 맞춤.

44) 에드워드 킨홀츠(Edward Kienholz 1927-1994) <주립병원> 1964-65 // 치매나 정신병 걸린 환자가 있는 병원. 침대에 묶여 있음. 정신병인듯.. 대소변을 해결할 수 있는. 꿈속에 조차도 자신이 묶여있는 비참한 현실을 벗어나지 못한다. 풍요로운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외받은 사람들에 초점을 맞춘 것. 약간 팝아트에서 벗어남. 팝아티스트로 넣기도 안넣기도 함. 웨셀만 <위대한 미국의 누드>와 비교하면, 웨셀만은 낙천적 고민 없어 보임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한 계층을 보여줌. 킨홀츠는 동시대에 어둠속에 갖혀있는 사람에 초점을 맞춤. 이 것 역시도 대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선 팝아트에 속함.

현대 미술에 있어 팝아트의 등장은 대중 소비 사회 반영. 굉장히 큰 이슈 남김.